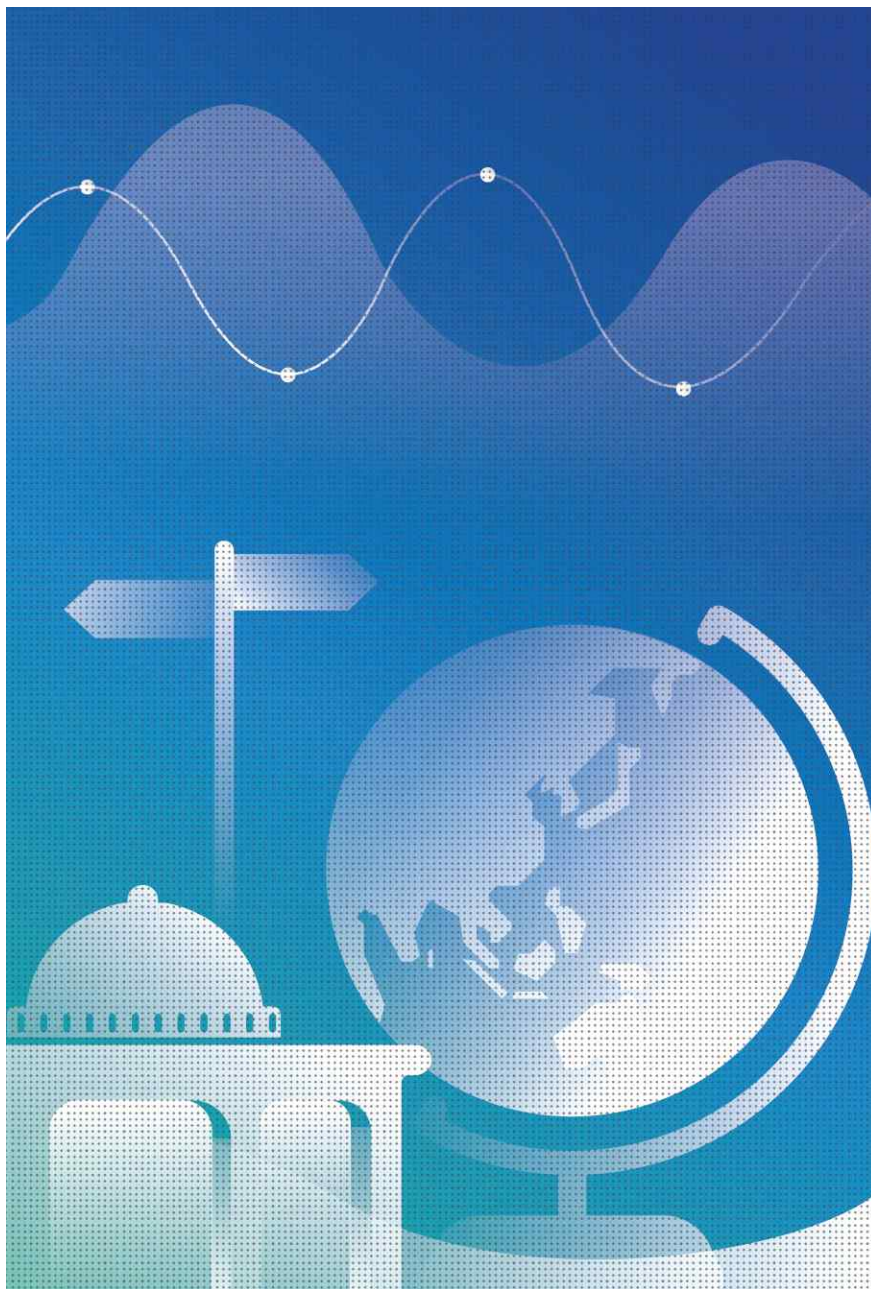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1-지역이슈-6(2021.09)

코로나19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CONTENTS

I. 아프리카 지역의 코로나19 현황

1. 확진자 현황
2. 백신 보급 현황

II.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1. 국내경제
 - (1) 경제성장률
 - (2) 소비자물가상승률
 - (3) 재정수지
2. 대외거래
 - (1) 연평균환율
 - (2) 경상수지
 - (3)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3. 유동성
 - (1) 외환보유액
 - (2)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4. 외채 현황
 - (1) 총외채잔액
 - (2) 외채원리금 상환비율

III. 결론 및 시사점

작성

책임조사역 박지현 (6252-3596)



I. 아프리카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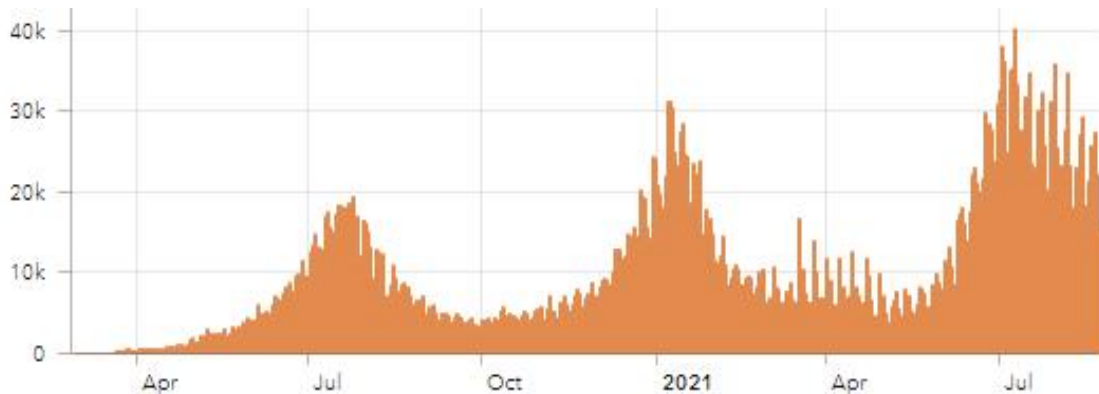
1. 확진자 현황

2021년 8월 24일 오전 9시 기준 아프리카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543.2만 명 발생

- WHO에 따르면 아프리카 47개국(북아프리카 포함)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감염자 수는 2021년 8월 24일 오전 9시 기준 543.2만 명이며, 사망자는 13.1만 명에 달함.
-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통계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시설, 의료진 및 진단키트의 부족으로 진단검사 자체가 부진하여 저소득국을 중심으로 과소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시기별) 2020년 2월 14일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해외 확진자 유입 및 방역 취약 등으로 2020년 3분기 후 1차 유행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나, 각국의 봉쇄령 및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다소 잦아들었음.
-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를 우려한 각국 정부의 봉쇄조치 완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위반 증가,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와 함께 남아공발 변이(베타 변이)가 발생 및 확산되며 발생한 2차 유행이 2019년 말부터 2021년 1분기까지 진행되며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음.
- 3차 유행은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변이(델타 변이)가 우간다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전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며 2021년 2분기 말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임.

[그림 1] 일별 아프리카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감 추이(2021.8.24자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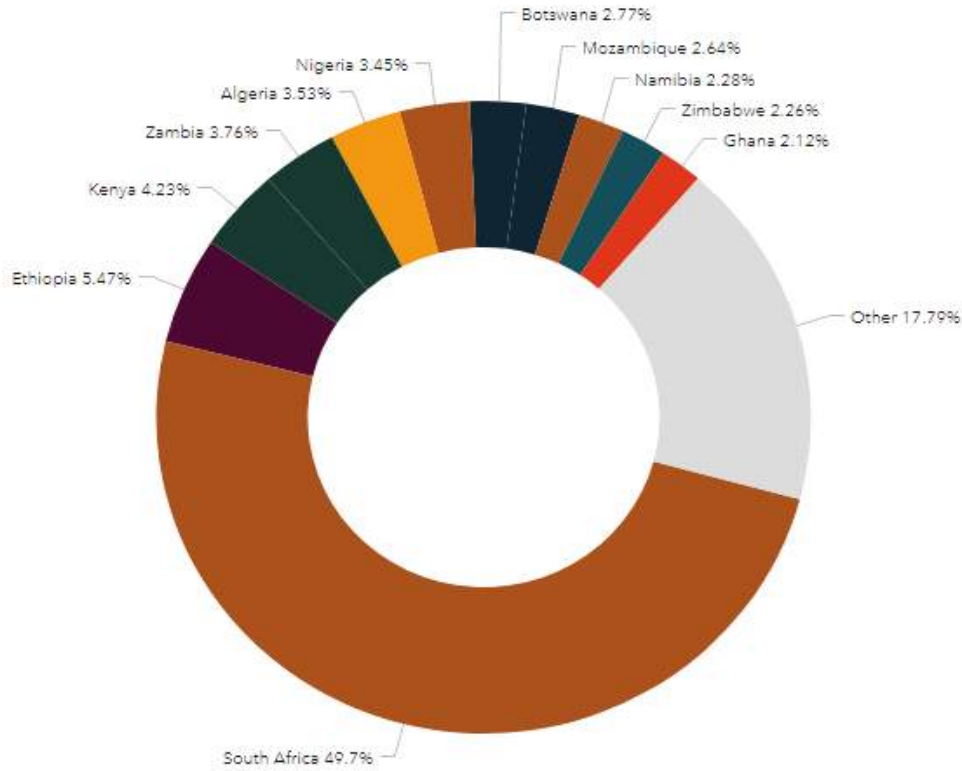
자료: WHO

남부 및 동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

- (국가별) 2021년 8월 24일 오전 9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남아공(49.68%, 269.9만 명), 에티오피아(5.47%, 29.7만 명), 케냐(4.23%, 23.0만 명), 잠비아(3.76%, 20.5만 명), 알제리(3.53%, 19.2만 명)의 순으로, 지역별로는 남부 및 동부 지역에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임.
- * 주요 5개국 누적 확진자 수: 남아공(아프리카 전체의 49.68%, 269.9만 명), 에티오피아(5.47%, 29.7만 명), 케냐(4.23%, 23.0만 명), 나이지리아(3.45%, 18.8만 명), 가나(2.12%, 11.5만 명)
- 다만, 중부 및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더욱 낙후되어 있고 정부의 대응능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중부 및 서부 지역에서의 실제 확진자 수는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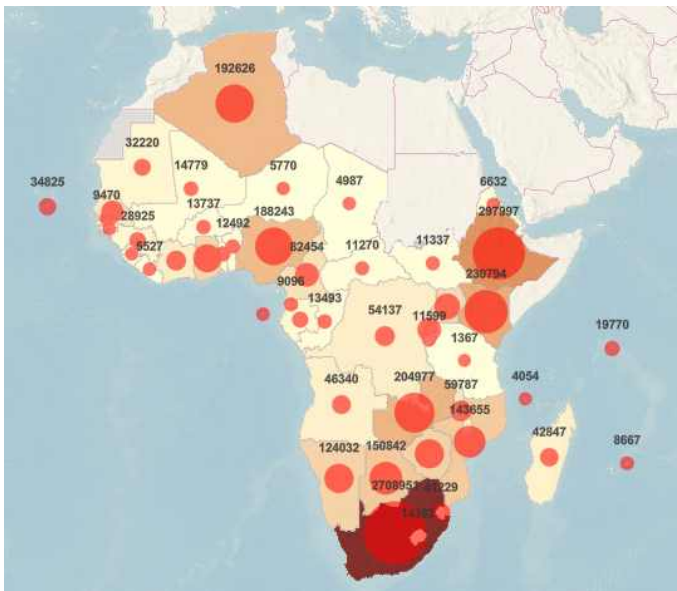


[그림 2] 아프리카 지역 내 국가별 누적 확진자 수 비율
(2021.8.24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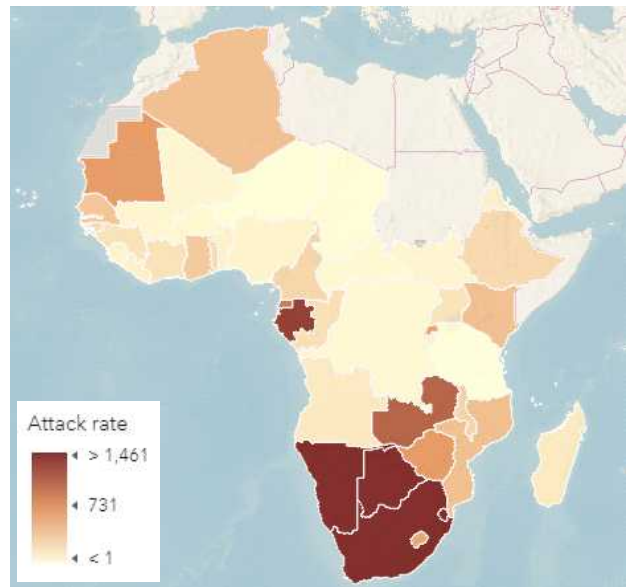
자료: WHO

[그림 3] 아프리카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 현황
(2021.8.24자 기준)



자료: WHO¹⁾

[그림 4] 10만 명당 확진자 수
(2021.8.24자 기준)



자료: WHO

1) WHO. (2021). Covid-19 (WHO African region). Dashboard.
<https://who.maps.arcgis.com/apps/dashboards/0c9b3a8b68d0437a8cf28581e9c063a9> (접속일 2021.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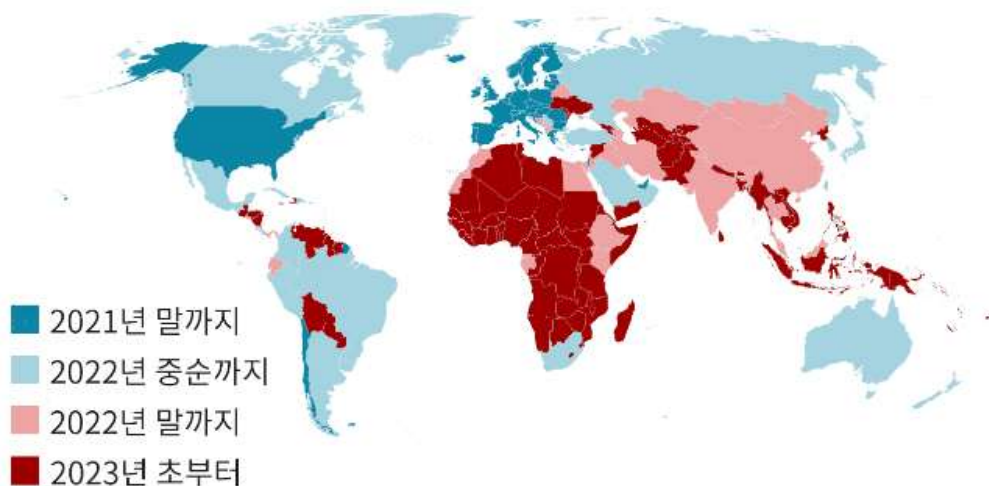


2. 백신 보급 현황

아프리카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률은 타 지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

- 아프리카 대륙의 백신 확보 및 접종률(1차 접종률 4.6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한정 시 2.85%)²⁾은 세계 평균 대비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소득수준(1인당 GDP) 등에 따라 국가 간에 접종률의 편차가 큼.
- 2021년 8월 23일 기준 2차 접종률이 10%를 초과하는 국가는 아프리카 53개국 중 총 5개국(세이셸 70.89%, 세인트헬레나 58.16%, 모리셔스 51.75%, 모로코 35.74%, 튀니지 14.51%)에 불과한 반면, 5% 미만인 국가는 39개국에 달함.
- 주요 5개국의 1차 접종률(괄호 안은 2차)은 남아공 13.89%(8.40%), 케냐 3.00%(1.45%), 가나 2.79%(1.31%), 에티오피아 2.04%(자료 없음), 나이지리아 1.24%(0.69%)로, 남아공을 제외하면 1차 접종률이 5%에 미달함.
-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및 개별 국가의 원조를 통해 백신을 공급 받고 있어, 백신 확보가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음³⁾.
- 특히, 아프리카 내 백신은 중국산(시노팜, 시노백) 및 인도산(코비실드, 코백신)이 지배적인데, 인도의 확진자 수 급증으로 백신의 국외 반출이 금지되어 아프리카 국가들은 백신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음.
-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백신 공급 창구를 다변화하고자 역내 단일 창구인 아프리카 백신 취득 태스크 팀(AVATT)을 통한 코로나19 백신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남아공, 이집트 등)는 백신 위탁 생산을 개시하였음.⁴⁾
- 한편,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확보된 백신의 접종 또한 의료시설·의료진 부족, 취약한 거버넌스, 백신 배급관리 미흡 및 운송 시스템 미비 등으로 지연되고 있음.
- EIU는 2023년 이후에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선진국(2022년 중반 이전 접종 완료 전망)에 비해 접종 완료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임.

[그림 5] 국가별 백신 접종 완료 예상 시기



자료: BBC⁵⁾(원자료: EIU, 2021.3.1자 기준)

2) 2021년 8월 23일 기준 Our World in Data (2021) COVID19 dataset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강문수, 정민지, & 박규태. (2021). 아프리카 코로나 19 백신 공급 현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1, 1-16.
 4) *Ibid.*
 5) BBC. (2021) 코로나 백신: 한눈에 보는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6.29일 업데이트)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6066227> (접속일: 2021.8.25.)



II.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본 장은 자료가 부족한 소말리아와 남수단을 제외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6개국을 대상으로 하나, 데이터 누락 등의 이유로 세부 항목별 대상국 수가 변동될 수 있음. 또한, 2020년 GDP 기준 상위 5개국(나이지리아, 남아공, 케냐, 에티오피아, 가나)을 주요국으로 선정하여 추가 분석을 진행함. 아울러 본 분석 데이터는 7월 기준 1차 데이터(IMF, OECD, EIU, UNCTAD)를 가공한 2차 데이터로, 향후 1차 데이터의 업데이트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국내경제

(1) 경제성장률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경제성장률은 2017~19년 간 3%대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2020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5.86%p 하락한 -2.60%를 기록하였음.

[표 1] 2020년 기준 경제성장률 상위 및 하위 5개국

단위: %

구분	국 가	2017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SSA 평균^{주)}		3.19	3.62	3.26	-2.60	3.49	4.43
상위	에티오피아	10.21	7.70	9.04	6.06	1.99	8.68
	기니	10.34	6.18	5.65	5.23	5.56	5.25
	코트디부아르	7.36	6.89	6.23	2.28	5.96	6.47
	베냉	5.67	6.70	6.87	2.00	4.97	6.01
	니제르	5.00	7.20	5.91	1.20	6.89	12.80
하위	짐바브웨	4.70	3.50	-7.41	-8.00	3.07	4.00
	보츠와나	2.90	4.48	3.03	-8.25	7.51	5.40
	세이셸	4.98	1.33	1.92	-13.36	1.80	4.25
	카보베르데	3.70	4.53	5.67	-14.03	5.76	5.96
	모리셔스	3.81	3.76	3.02	-15.80	6.60	5.20

자료: IMF WEO(2021년 4월)

주: SSA 평균은 대상국들의 단순평균을 의미

- (주요국) 2020년 주요 5개국 평균 경제성장률은 -0.39%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이나, 남아공의 경우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인해 경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음.

[표 2] 주요 5개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국 가	2017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에티오피아	10.21	7.70	9.04	6.06	1.99	8.68
가나	8.14	6.26	6.48	0.88	4.64	6.10
케냐	4.81	6.32	5.37	-0.13	7.56	5.73
나이지리아	0.81	1.92	2.21	-1.79	2.53	2.31
남아공	1.42	0.79	0.15	-6.96	3.10	1.97

자료: IMF WEO(2021년 4월)



(2) 소비자물가상승률

- 202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88%로 전년 대비 1.85%p 상승하였으나, 이는 2017~18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임.
- 2020년 짐바브웨 및 수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557.21%와 163.26%로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극심한 물가상승을 겪었으며, 앙골라와 에티오피아 또한 20% 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반면 가봉, 세이셸, 코모로, 말리, 카보베르데는 1% 내외의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국가 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편차가 컸음.

[표 3]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위 및 하위 5개국

단위: %

구분	국 가	2017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SSA 평균^{주)}		5.95	5.21	4.03	5.88	5.56	5.04
상위	짐 바 브 웨	0.91	10.61	255.29	557.21	99.25	24.68
	수 단	32.35	63.29	50.99	163.26	197.12	44.46
	앙 골 라	29.84	19.63	17.08	22.28	22.30	13.10
	에 티 오 피 아	10.69	13.83	15.81	20.35	13.13	8.04
	라 이 베 리 아	12.44	23.55	26.97	16.95	10.86	15.18
하위	가 봉	2.65	4.78	2.02	1.34	2.00	2.00
	세 이 셸	2.86	3.70	1.81	1.20	3.73	2.46
	코 모 로	0.09	1.70	3.70	1.09	0.32	1.23
	말 리	1.76	1.73	-2.89	0.63	1.67	2.05
	카 보 베 르 데	0.78	1.28	1.11	0.61	1.20	1.40

자료: IMF WEO(2021년 4월)

주: 인플레이션이 100%를 초과하는 수단과 짐바브웨를 제외한 44개국의 평균

- (주요국) 2020년 주요 5개국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76%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보다 2.88%p 높으며, 전년 대비 상승폭(2.60%p)도 상대적으로 높음.
-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가나의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20% 내외로 매우 높았으나, 케냐와 남아공은 5% 이내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음.

[표 4] 주요 5개국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국 가	2017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에 티 오 피 아	10.69	13.83	15.81	20.35	13.13	8.04
나 이 지 리 아	16.50	12.09	11.40	13.25	15.97	13.46
가 나	12.37	9.84	7.14	9.89	8.97	8.22
케 냐	7.99	4.69	5.20	5.29	5.00	5.00
남 아 공	5.27	4.62	4.13	3.27	4.28	4.47

자료: IMF WEO(2021년 4월)



(3) 재정수지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재정수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사회보장 관련 정부지출 증가 및 민간소비·기업활동 위축 등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GDP 대비 평균 비중이 2019년 -3.08%에서 2020년 -5.68%로 적자 폭이 2.6%p 확대되었음.
- 모리타니, 차드, 상투메프린시페, 콩고공화국, 짐바브웨 5개국은 2020년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외 41개국은 GDP 대비 -0.12% ~ -16.85%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를 시현하였음.
- 2020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폭이 전년 대비 5%p 이상 확대된 국가는 총 9개국으로 모잠비크(-0.15% → -5.39%), 토고(-1.61% → -6.11%), 카보베르데(-1.84% → -8.87%), 기니비사우(-3.92% → -8.99%), 남아공(-5.27% → -12.25%), 보츠와나(-7.84% → -13.19%), 말라위(-6.55% → -13.25%), 가나(-7.34% → -15.98%), 세이셸(0.92% → -16.85%)이며, 특히 세이셸의 경우 하락 폭(-17.77%p)이 가장 컸음.

[표 5] 2020년 기준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 상위 및 하위 5개국

단위: GDP 대비 %

구분	국 가	2017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SSA 평균		-3.60	-2.99	-3.08	-5.68	-4.95	-3.57
상위	모 리 타 니	0.53	3.42	2.64	2.97	-2.00	0.07
	차 드	-0.23	1.94	-0.17	1.58	-0.84	0.70
	상투메프린시페	-2.69	-1.88	-1.76	1.49	-3.93	-1.21
	콩 고 공 화 국	-5.93	5.76	4.80	1.47	2.41	1.31
	짐 바 브 웨	-8.29	-4.67	-1.45	1.13	-0.81	-0.77
하위	보 츠 와 나	-1.05	-4.59	-7.84	-13.19	-8.38	-7.10
	말 라 위	-7.39	-6.21	-6.55	-13.25	-12.54	-9.47
	잠 비 아	-7.59	-8.44	-9.81	-13.94	-9.33	-6.93
	가 나	-4.06	-6.97	-7.34	-15.98	-12.59	-10.37
	세 이 셸	0.48	0.20	0.92	-16.85	-12.96	-9.85

자료: IMF WEO(2021년 4월)

- (주요국) 2020년 주요 5개국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평균 -9.04%로 적자 폭이 전년 대비 3.51%p 확대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와 전년 대비 하락 폭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보다 높음.
- 특히, 남아공과 가나의 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까지 GDP의 10% 이상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수지 적자 일부가 공공부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정부의 재정 및 부채관리가 긴요한 것으로 보임.

[표 6] 주요 5개국의 연도별 GDP 대비 재정수지

단위: %

국 가	2017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에 티 오 피 아	-3.24	-3.03	-2.53	-2.76	-3.28	-2.16
나 이 지 리 아	-5.40	-4.31	-4.76	-5.84	-4.24	-4.55
케냐	-7.84	-7.38	-7.73	-8.35	-8.06	-6.65
남 아 공	-4.38	-4.12	-5.27	-12.25	-10.60	-8.26
가 나	-4.06	-6.97	-7.34	-15.98	-12.59	-10.37

자료: IMF WEO(2021년 4월)



2. 대외거래

(1) 연평균환율

2009년 폐지되었다가 2019년에 재도입된 짐바브웨 달러(Z\$)는 연평균환율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4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함.

- 202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연평균환율 상승률은 6.56%로 2019년(8.7%, 수단(88.1%) 제외 시 6.9%) 대비 변동 폭이 작았으나, 국가별 변동률은 큰 편차를 보임.
- 2020년 통화가치(연평균)가 가장 많이 하락한 5개국은 앙골라(Angolan Kwanza, KZ) 58.5%, 잠비아(Zambian Kwacha) 42.3%, 세이셸(Seychellois rupee, SRs) 25.5%, 에티오피아(Ethiopian Birr, Br) 20.1%, 수단(Sudanese Pound, SDG) 18.0% 순임.
- 반면, 카보베르데(Cabo Verdean Escudo, Esc), 상투메프린시페(Dobra, Db), 서아프리카 세파프랑(XOF)*, 중앙아프리카 세파프랑(XAF)**, 코모로(Comorian franc, CF) 17개국의 통화가치는 전년 대비 소폭(1.7%~2.0%) 상승하였음.

* 서아프리카 8개국(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에서 사용 중

** 중앙아프리카 6개국(가봉,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콩고)에서 사용 중

[표 7] 2020년 기준 자국 통화가치 변동률 상위 국가(화폐단위 기준)

단위: 연중 미 달러당 각국 통화

구분	국 가	화폐	2017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자국통화 평가절하	앙 골 라	KZ	165.92	252.86	364.83	578.26	648.70	656.90
	잠 비 아	ZK	9.52	10.46	12.89	18.34	22.53	21.63
	세 이 셸	SRs	13.65	13.91	14.03	17.62	17.43	16.40
	에 티 오 피 아	Br	23.87	27.43	29.07	34.93	43.39	51.97
	수 단	SDG	6.68	24.33	45.77	54.00	357.90	456.40
자국통화 평가절상	카 보 베 르 데	Esc	97.81	93.41	98.50	96.80	91.04	93.06
	상 투 메 프 린 시 페	Db	21.74	20.75	21.88	21.51	22.25	26.60
	코 모 로	CF	435.49	416.58	439.46	430.72	410.30	422.3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XAF	580.66	555.45	585.91	575.59	547.10	563.10
	카 메 룬	XAF	580.66	555.45	585.91	575.59	555.20	561.80
	콩 고 공 화 국	XAF	580.66	555.45	585.91	575.59	555.20	561.80
	가 봉	XAF	580.66	555.45	585.91	575.59	541.50	553.60
	적 도 기 니	XAF	580.66	555.45	585.91	575.59	541.50	553.60
	차 드	XAF	580.66	555.45	585.91	575.59	547.10	563.10
	부 르 키 나 파 소	XOF	580.66	555.45	585.91	575.59	555.20	561.90
	코 트 디 부 아 르	XOF	580.66	555.45	585.91	575.59	547.10	563.10
	기 니 비 사 우	XOF	580.66	555.45	585.91	575.59	542.10	552.40
	말 리	XOF	580.66	555.45	585.91	575.59	555.20	561.90
	니 제 르	XOF	580.66	555.45	585.91	575.59	555.20	561.90
	세 네 갈	XOF	580.66	555.45	585.91	575.59	541.50	553.60
토 고	XOF	580.66	555.45	585.91	575.59	541.50	553.60	
베 냉	XOF	580.66	555.45	585.95	574.29	541.50	553.60	

자료: IMF IFS, EIU



- (주요국) 2020년 주요 5개국의 연평균환율 상승 폭은 12.52%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보다 높음.
- 에티오피아(20.1%), 나이지리아(16.9%), 남아공(13.9%)의 통화가치는 10% 이상 하락하였으나, 가나(7.3%) 및 케냐(4.4%)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하였음.

[표 8] 주요 5개국의 연도별 연평균환율

단위: 연중 미 달러당 각국 통화

국 가	2017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에티오피아	23.87	27.43	29.07	34.93	43.39	51.97
나이지리아	305.79	306.08	306.92	358.81	406.50	422.40
남아공	13.32	13.23	14.45	16.46	14.43	15.20
가나	4.35	4.59	5.22	5.60	5.75	5.86
케냐	103.41	101.30	101.99	106.45	108.50	114.50

자료: IMF IFS, EIU

(2) 경상수지

- 202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제무역의 급격한 위축으로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축소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평균 비중은 전년 대비 0.96%p 확대된 -7.34%에 그쳤음.
- 잠비아는 2020년 상품수출액이 전년 대비 10.50% 증가하였으나, 상품수입액이 26.40% 감소하며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였음. 반면, 세이셸은 관광업 등 서비스수출액이 전년 대비 40.53% 축소되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폭이 전년 대비 12%p 확대된 -29.22%를 기록하였음.

[표 9] 2020년 기준 GDP 대비 경상수지 상위 및 하위 5개국

단위: GDP 대비 %

구분	국 가	2017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SSA 평균		-6.35	-6.47	-6.38	-7.34	-6.85	-6.54
상위	잠비아	-1.68	-1.30	0.60	12.16	8.87	9.07
	기니	5.02	-1.56	-2.28	6.86	2.40	0.44
	에스와티니	6.19	1.30	4.38	6.45	6.74	4.77
	남아공	-2.55	-3.64	-3.04	2.22	1.67	-2.24
	나미비아	-4.25	-3.41	-1.72	1.70	-0.42	-2.01
하위	부룬디	-11.77	-11.94	-13.73	-16.93	-17.44	-16.89
	시에라리온	-21.79	-18.65	-22.22	-23.81	-21.53	-22.07
	모잠비크	-19.66	-30.60	-19.89	-26.51	-25.68	-25.10
	라이베리아	-16.96	-20.65	-21.33	-28.65	-28.59	-27.49
	세이셸	-19.31	-18.35	-17.19	-29.22	-31.59	-23.13

자료: IMF BOPS, EIU

- (주요국) 2020년 주요 5개국 경상수지는 남아공의 경상수지 흑자 전환(2.22%)에 힘입어 GDP 대비 평균 -2.45%의 적자를 기록, 사하라 이남 평균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임.
- 남아공은 2020년 상품수입액 감소 폭(-22.23%)이 상품수출액 감소 폭(-5.14%)을 크게 상회하며 GDP 대비 2.22%의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였음.



[표 10] 주요 5개국의 연도별 GDP 대비 경상수지

단위: %

국 가	2017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남 아 공	-2.55	-3.64	-3.04	2.22	1.67	-2.24
에 티 오 피 아	-7.72	-5.75	-5.43	-2.81	-6.27	-6.14
가 나	-3.40	-3.12	-2.78	-3.11	-1.86	-2.11
나 이 지 리 아	3.38	1.48	-3.26	-3.95	-1.11	0.59
케냐	-7.21	-5.75	-5.83	-4.62	-5.40	-5.29

자료: IMF BOPS, EIU

(3)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 202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앞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액(도착금액에서 회수금액을 차감한 순유입액을 기준으로 한 총액)은 전년 대비 12.08% 감소한 296.71억 달러이나, 국가별 유입액 증감 편차가 큼.

[표 11] 2020년 기준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상위 및 하위 5개국

단위: 백만 달러

구분	국 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SSA	총 유입액	46,876.98	32,981.20	27,432.46	30,533.88	33,748.95	29,671.27
	증가율	8.27	-29.64	-16.82	11.31	10.53	-12.08
	SSA 평균	1,019.06	716.98	596.36	663.78	733.67	645.03
상위	콩고공화국	3,803.30	1,611.62	4,416.95	4,315.25	3,366.09	4,015.53
	남 아 공	1,729.38	2,235.00	2,008.36	5,449.55	5,124.99	3,106.49
	에티오피아	2,626.52	4,142.94	4,017.10	3,310.30	2,548.80	2,395.38
	나이지리아	3,064.17	3,453.26	2,412.97	775.25	2,305.10	2,385.28
	모잠비크	3,866.83	3,093.40	2,293.10	2,703.03	2,211.65	2,337.30
하위	기니비사우	18.58	24.00	15.69	20.56	71.66	20.41
	코모로	4.94	3.57	3.92	5.67	3.68	8.56
	부룬디	7.36	0.06	0.32	0.98	1.04	6.06
	나미비아	888.00	355.59	279.95	208.56	-178.93	-74.61
	앙골라	10,028.22	-179.52	-7,397.30	-6,456.08	-4,098.48	-1,866.47

자료: UNCTAD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투자 유입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국가는 8개국*이며, 50% 이상 증가한 국가는 5개국**임(단, 순감소국인 나미비아 및 앙골라 제외).

* 가나(-51.6%), 카메룬(-52.5%), 말리(-57.2%), 잠비아(-57.3%), 르완다(-61.9%), 에스와티니(-68.6%), 기니비사우(-71.5%), 말라위(-88.1%)

** 기니(631.8%), 부룬디(479.6%), 코모로(132.7%), 상투메프린시페(94.7%), 토고(85.0%)



[표 12] 2020년 기준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증가율 상위 및 하위 5개국

단위: %

구분	국 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상위	기 니	-172.23	2,938.06	-64.31	-38.93	-87.41	631.79
	부 룬 디	-84.36	-99.25	470.42	210.85	6.22	479.65
	코 모 로	5.38	-27.69	9.79	44.72	-35.17	132.65
	상투메프린시페	-62.55	97.47	-4.65	-20.49	4.26	94.74
	토 고	377.35	-117.96	-291.24	-307.08	-288.51	84.98
하위	잠 비 아	-12.35	-49.20	67.07	-63.12	34.16	-57.29
	르 완 다	-17.24	-9.87	4.13	7.15	-7.35	-61.92
	에스와티니	61.81	-48.25	-361.92	-165.12	257.02	-68.58
	기니비사우	-35.68	29.14	-34.62	31.05	248.47	-71.52
	말 라 위	31.66	-77.22	-22.31	963.64	-14.27	-88.08

자료: UNCTAD

- (주요국) 2020년 주요 5개국 FDI 유입액(순유입액 기준)은 104.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9%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30%대로 감소하였음.

* SSA 총 FDI 대비 5개국 비중(%): '15년 25.76 → '16년 43.83 → '17년 47.74 → '18년 44.75 → '19년 44.32 → '20년 35.32

[표 13] 주요 5개국의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 아 공	1,729.38	2,235.00	2,008.36	5,449.55	5,124.99	3,106.49
에 티 오 피 아	2,626.52	4,142.94	4,017.10	3,310.30	2,548.80	2,395.38
나 이 지 리 아	3,064.17	3,453.26	2,412.97	775.25	2,305.10	2,385.28
가 나	3,192.30	3,485.30	3,255.00	2,989.00	3,879.00	1,877.00
케 냐	1,463.74	1,138.61	1,403.57	1,139.44	1,098.38	716.76

자료: UNCTAD

- 특히, 가나(-51.6%), 남아공(-39.4%), 케냐(-34.7%)에 대한 FDI 유입이 상대적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표 14] 주요 5개국의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증가율

단위: %

국 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나 이 지 리 아	-34.72	12.70	-30.12	-67.87	197.34	3.48
에 티 오 피 아	41.59	57.73	-3.04	-17.59	-23.00	-6.02
케 냐	-3.31	-22.21	23.27	-18.82	-3.60	-34.74
남 아 공	-70.03	29.24	-10.14	171.34	-5.96	-39.39
가 나	-4.91	9.18	-6.61	-8.17	29.78	-51.61

자료: UNCTAD



3. 유동성

(1) 외환보유액

데이터가 부족한 수단과 화폐개혁 중인 서부 아프리카 세파프랑 사용 8개국*(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을 제외한 총 37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함

* 서아프리카 세파프랑존 개혁안(2019년 12월)의 일환으로 외환보유액의 50%를 (유로로 환전하여) 프랑스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운영계좌의 예치금을 서아프리카중앙은행(BCEAO)의 계좌로 반납하고 있음. 참고로, 개혁안의 핵심인 세파프랑을 대체할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차원의 단일통화인 에코(Eco)를 도입하는 데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말 사하라 이남 평균 외환보유액은 42.05억 달러로 G20의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 중국 정부의 채무 상환유예-탕감, IMF-WB-AfDB 등으로부터의 긴급자금 지원 등 국제사회의 유동성 확보 지원 등에 힘입어 전년 말 대비 4.2% 감소에 그쳤음.
- 다만, 이는 채무상환 유예 또는 상환 의무가 있는 긴급자금 등을 통한 조달에 의지한 결과로, 유동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한편, 전년 대비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국가는 17개국인 데 비해 증가한 국가는 20개국으로, 외환보유액 증감율의 국가 간 편차가 컸음.

[표 15] 2020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 상위 및 하위 5개국

단위: 백만 달러

구분	국 가	2017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SSA 평균		4,242.17	4,292.10	4,388.97	4,204.99	4,279.67	4,508.70
상위	남 아 공	42,735.00	43,556.00	45,904.00	44,270.00	46,937.38	46,501.28
	나 이 지 리 아	37,223.13	40,509.79	36,020.69	34,355.33	32,560.82	35,945.52
	앙 골 라	16,968.50	14,940.47	15,889.72	13,348.91	13,599.10	15,099.10
	케 냐	7,291.11	8,119.66	9,037.35	8,250.54	8,376.07	9,286.27
	가 나	6,414.95	5,766.30	6,979.87	7,191.70	7,255.92	7,478.72
하위	에 리 트 리 아	138.22	158.10	186.96	138.38	171.08	193.88
	상투메프린시페	58.66	43.39	46.44	74.14	67.77	86.47
	부 룬 디	66.88	32.51	82.18	65.07	81.82	90.82
	짐 바 브 웨	178.51	29.44	146.92	29.61	119.78	135.68
	적 도 기 니	8.38	12.70	5.13	19.41	25.89	59.09

자료: IMF IFS, EIU

- 2020년 주요 5개국 평균 외환보유액은 194.18억 달러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대비 월등히 높으며, 전년 대비 감소율도 3.78%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
- 한편, 가나는 유로본드 발행을 통해 2020년(가중평균 만기 11년, 이자율 8%)과 2021년(가중평균 만기 17년, 이자율 7.5%) 각각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으며, 케냐 또한 2021년 6월 10억 달러 상당의 자금(만기 12년, 이자율 6.3%)을 유로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바 있음.



[표 16] 주요 5개국의 연도별 외환보유액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2017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남 아 공	42,735.00	43,556.00	45,904.00	44,270.00	46,937.38	46,501.28
나 이 지 리 아	37,223.13	40,509.79	36,020.69	34,355.33	32,560.82	35,945.52
케 냐	7,291.11	8,119.66	9,037.35	8,250.54	8,376.07	9,286.27
가 나	6,414.95	5,766.30	6,979.87	7,191.70	7,255.92	7,478.72
에 티 오 피 아	3,022.37	3,957.72	2,964.69	3,021.74	3,162.72	3,340.22

자료: IMF IFS, EIU

(2)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1) 외환보유액” 부분과 같이 수단 및 서부 아프리카 세파프랑 사용 8개국(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을 제외하고 총 37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함

- 2020년 사하라 이남 평균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4.08개월분으로 전년대비 0.72개월분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외환보유액 자체의 증가보다 2020년 수입액 감소 폭이 외환보유액 감소 폭에 비해 더욱 컸던 데 기인함.

[표 17] 2020년 기준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상위 및 하위 5개국

단위: 개월

구분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SSA 평균		3.54	3.16	3.36	4.08	3.65	3.67
상위	코 모 로	7.59	6.24	6.23	10.49	7.98	8.63
	앙 골 라	5.66	5.25	6.25	7.78	5.96	5.98
	카 보 베 르 데	5.78	5.09	6.45	7.49	7.34	7.26
	보 츠 와 나	11.21	8.57	7.96	7.32	6.48	6.52
	모 리 셔 스	4.76	4.76	5.58	6.93	6.74	6.84
하위	차 드	0.01	0.36	0.72	1.07	1.06	1.06
	부 룬 디	0.89	0.43	1.01	0.78	0.86	0.94
	콩 고 민주공화국	0.51	0.40	0.74	0.48	0.34	0.33
	적 도 기 니	0.02	0.03	0.01	0.07	0.08	0.17
	짐 바 브 웨	0.28	0.04	0.22	0.05	0.18	0.20

자료: IMF IFS, IMF BOPS, EIU

- 2020년 주요 5개국 평균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4.22개월분으로 전년대비 0.71개월분 증가하였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표 18] 주요 5개국의 연도별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단위: %

국 가	2017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남 아 공	4.44	4.08	4.55	5.83	5.09	4.81
나 이 지 리 아	6.98	5.50	3.75	5.19	4.05	4.17
케 냐	4.22	4.47	4.81	5.10	4.64	4.84
가 나	3.06	2.49	2.67	2.95	2.82	2.85
에 티 오 피 아	1.83	2.34	1.79	2.03	1.77	1.83

자료: IMF IFS, IMF BOPS, EIU



4. 외채 현황

(1) 총외채잔액

OECD에서 외채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코모로, 세이셸, 상투메프린시페를 제외한 4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 2020년 사하라 이남 평균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57.09%로 전년 대비 5.28%p 증가하였음. 특히 모잠비크, 수단, 잠비아, 카보베르데는 동 비중이 100%를 초과하였음.
- 잠비아, 앙골라는 동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부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표 19] 2020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 상위 및 하위 5개국

단위: %

구분	국가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SSA 평균		48.38	51.81	57.09	56.34	54.12
상위	모 잠 비 크	156.70	163.89	206.58	265.68	316.83
	수 단	153.67	167.98	167.65	164.27	163.03
	잠 비 아	72.93	117.86	151.31	147.59	140.89
	카 보 베 르 데	103.90	102.00	108.91	110.12	105.23
	앙 골 라	59.30	78.60	94.35	90.18	85.23
하위	에 스 와 티 니	17.38	19.51	25.93	28.83	29.65
	콩고민주공화국	25.57	24.19	25.48	20.16	18.56
	기 니	21.50	21.54	24.66	29.29	31.23
	나 이 지 리 아	23.03	25.06	24.32	21.30	18.78
	부 르 키 나 파 소	21.23	24.08	24.18	23.20	23.43

자료: OECD, IMF

- 2020년 주요 5개국 평균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전년 대비 4.48%p 상승한 46.84%로, 사하라 이남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
- 다만, 현지화 채무 비중이 높은 남아공의 경우 외채규모에 비해 공적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정부의 부채관리가 긴요함.

* GDP 대비 총 공적채무 비중(%): ('18)56.7 → ('19)62.2 → ('20)78.1 → ('21^f)82.4 (출처: OECD)

[표 20] 주요 5개국의 연도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단위: %

국 가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남 아 공	46.99	53.54	67.65	51.36	49.61
케 냐	51.34	54.56	57.75	58.87	60.20
가 나	45.40	47.17	52.53	48.88	47.53
에 티 오 피 아	33.43	31.46	31.93	33.86	36.17
나 이 지 리 아	23.03	25.06	24.32	21.30	18.78

자료: OECD, IMF



(2) 외채원리금 상환비율

OECD에서 외채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코모로, 세이셸, 상투메프린시페를 제외한 4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 202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외채원리금 상환비율(외채상환액/총수출액, Debt Service Ratio: D.S.R.)은 수출액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07%p 상승한 18.58%를 기록하였음.
- 2020년 D.S.R.이 20%를 초과하여 단기 외채상환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전년(9개국) 대비 급증, 아프리카 지역 내 단기 외채상환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표 21] 2020년 기준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 상위 및 하위 5개국

단위: %

구분	국가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SSA 평균		13.12	13.51	18.58	16.20	15.59
상위	나 이 지 리 아	23.04	24.99	63.40	34.13	14.24
	수 단	37.88	34.09	47.32	39.32	67.38
	나 미 비 아	37.80	37.63	47.10	46.96	38.46
	짐 바 브 웨	45.98	47.66	44.90	45.84	46.57
	케 냐	38.61	46.20	42.61	36.97	39.57
하위	차 드	6.01	4.06	5.19	6.00	6.36
	부 르 키 나 파 소	3.54	3.62	4.72	6.09	4.42
	콩 고 민주공화국	1.39	4.18	4.54	4.58	4.28
	기 니	2.48	2.18	2.49	3.58	4.60
	모 리 셔 스	2.27	2.16	2.16	1.90	1.79

자료: OECD, IMF BOPS, EIU

- 2020년 주요 5개국 평균 D.S.R.은 전년 대비 7.63%p 상승한 33.46%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보다 크게 높아 단기 외채상환위험이 심각한 수준으로 우려됨.
- 나이지리아의 경우, 2020년 총수출은 국제유가 하락 및 원유 국제수요 감소로 인한 원유수출 위축의 결과 전년 대비 42.58% 급감한 반면 외채원리금 상환액은 전년 대비 45.63% 급증, D.S.R.이 전년 대비 38.41%p나 상승한 63.40%를 기록하였음. 다만, 2021~22년 중 D.S.R.은 수출 회복과 원리금상환액 감소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임.

[표 22] 주요 5개국의 연도별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

단위: %

국가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나 이 지 리 아	23.04	24.99	63.40	34.13	14.24
케 냐	38.61	46.20	42.61	36.97	39.57
에 티 오 피 아	21.50	29.18	23.96	22.56	22.78
가 나	7.80	15.57	20.90	16.76	17.90
남 아 공	16.02	13.19	16.44	34.60	10.85

자료: OECD, IMF BOPS, EIU



III. 결론 및 시사점

-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202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지표는 2019년 대비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 특히 경제성장률, FDI 유입액 증가율,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D.S.R.은 전년 대비 5%p 이상 악화되었으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폭도 상당히 확대되었음. 한편, 평균 외환보유액은 4.2% 감소하였으나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수입액 감소로 소폭 개선되었음.

[표 23] 지표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변동 추이

지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국내경제	경제성장률	%	3.62	3.26	-2.60	3.49	4.43
	소비자물가상승률	%	5.21	4.03	5.88	5.56	5.04
	재정수지/GDP	%	-2.99	-3.08	-5.68	-4.95	-3.57
대외거래	경상수지/GDP	%	-6.47	-6.38	-7.34	-6.85	-6.54
	FDI 유입액	백만달러	30,533.88	33,748.95	29,671.27	-	-
	(FDI 유입액 증가율)	(%)	(11.31)	(10.53)	(-12.08)	-	-
유동성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4,292.10	4,388.97	4,204.99	4,279.67	4,508.70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	개월	3.16	3.36	4.08	3.65	3.67
외채현황	총외채잔액/GDP	%	48.38	51.81	57.09	56.34	54.12
	외채원리금 상환비율	%	13.12	13.51	18.58	16.20	15.59

- 주요 5개국(나이지리아, 남아공, 케냐, 에티오피아, 가나)의 경우 2020년 경제성장률, GDP 대비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규모 등의 지표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대비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확대 폭 및 FDI 유입 감소 폭 등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D.S.R.의 경우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어 단기 외채위험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표 24] 지표별 주요 5개국 평균 변동 추이

지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 ^f	2022 ^f
국내경제	경제성장률	%	4.60	4.65	-0.39	3.96	4.96
	소비자물가상승률	%	7.43	6.16	8.76	7.73	6.96
	재정수지/GDP	%	-5.16	-5.53	-9.04	-7.75	-6.40
대외거래	경상수지/GDP	%	-3.36	-4.07	-2.45	-2.59	-3.04
	FDI 유입액	백만달러	13,663.54	14,956.27	10,480.91	-	-
	(FDI 유입액 증가율)	(%)	(4.33)	(9.46)	(-29.92)	-	-
유동성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20,381.89	20,181.32	19,417.86	19,658.58	20,510.40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	개월	3.78	3.51	4.22	3.67	3.70
외채현황	총외채잔액/GDP	%	40.04	42.36	46.84	42.85	42.46
	외채원리금 상환비율	%	21.39	25.83	33.46	29.00	21.07

- 2021년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회복속도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추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추가 발생 여부, 국제사회의 추가 지원 여부 등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선진국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백신 보급이 훨씬 늦게 진행되고 있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회복 속도는 세계 평균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됨.
- IMF가 World Economic Outlook(2021.4월)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은 전 세계 평균이 2021년 6.03% 및 2022년 4.42%이고 신흥시장 평균이 2021년 6.67% 및 2022년 4.98%인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2021년 3.41% 및 2022년 3.97%에 그쳤음.